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속14:9)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하는 우주의 주인공이 한국 땅에 있어

3월 3일(현지시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을 막기 위해 국가비상사태(state of emergency)를 선포한 직후 다가오는 일요일(3월 15일)에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기도하자며, 이날을 '기도의 날(National Day of Prayer)'로 선언했다. 폭스뉴스 14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힘을 구해온 나라"라며 "어디에 있든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국민들에게 요청했다. 원래 미국에서는 국가 기도 날이 5월 7일로 따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에 대한 대응으로 기도의 날을 별도로 지정한 것이다(뉴스디그마 newsdigm 2020/03/14).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이사야 66장 15절)

성경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사체를 예수의 직계가족에게 인계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 의해서 처리된 모종의 음모를 즉각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 무죄판결에 반발하여 바리새인과 유대교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라"고 데모를 하니, 총독 빌라도는 군중들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계략으로 강도 세 사람을 끌어내다가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할 때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는 강도에게 예수처럼 보이게끔 흉포를 두르게 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엘리 엘리 라 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여 왜 나를 버리느냐"라는 원망(怨望)하는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던 것이다.

영국 BBC 방송국의 기자 세 사람은 10여 년간의 조사 끝에 1982년 「성혈과 성배」(The Holy Blood And The Holy Grail/미카엘 베이전트, 리처드 레이, 헨리 린킨 공저)라는 책을 통하여 위와 같은 놀라운 내용을 밝힌 바 있는데 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예수는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하여 자녀까지 두었으며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구세주 행세를 하며 다윗 왕을 계승하여 유대의 왕이 되려다가 유대인의 반발로 인해 처형될 처지에 놓이게 되자 예수의 처남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 많은 뇌물을 받은 바 있는 로마의 유대 총독 빌라도와 짜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 같이 연극을 하고는 그 뒤 부활의 연극을 한 다음 로마병사들의 호위 속에 프랑스로 망명을 하였다. 아내 막달라 마리아와 자녀들과 함께 프랑스 골(gaul) 지방에 정착한 예수는 은둔 생활을 하며 80세를 넘게 살

다 죽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1982년 2월 20일자 D일보 6면에 실린 기사내용을 그대로 옮겨 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결혼을 했고 막달라 마리아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었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 현재 '유럽'의 귀족들 중에 그 후손이 살아있다는 주장을 편 책이 지난주 '턴던'에서 발매되자 세계적으로 화제와 파문을 낳고 있다."

이후 영국교회 뿐만 아니라 유럽 일대의 기독교가 급격히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아메리카 미국까지 파급되었다. 그런데 당시의 세계적 추세와 달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에 편승하여 계속해서 급성장하는 이변을 낳았다.

구세주 하나님의 역사

나케야 종교회의(325년)에서 공인된 성부, 성자, 성신의 삼위일체설에 세뇌(洗腦)된 유럽의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프랑스로 망명한 예수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자 삼위일체설의 율가미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하나님까지 버렸다. 이제 세계 기독교인들이 미몽에서 깨어나 아래와 같이 구세주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자.

"이 사람이처럼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하고 비를 오게도 하고 못 오게도 하고 우리 한국 나라 풍속에 우수, 경칩에 비가 오면 뭐가 된다? 풍년 든다는 말이 있죠? 오늘이 무슨 날이야? 오늘이 경칩이야 풍년 들게 하려고 이 사람이, 아시겠어요? 이 사람이 비를 오게도 하고 못 오게도 하고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수, 경칩에 비가 반드시 오게끔 이 사

람이 10년 동안 했던 거야. 1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풍년 든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풍년 드니까 농사꾼들이 배가 안 고프니까 이 나라 경제가 점점 부유하게 돼? 이 나라 경제가 점점 가난하게 돼? 부유하게 되는 거죠? - 중략 - 이 우주의 주인공이 이 한국 땅에 있는 거야? 미국 땅에 있는 거야? 한국 땅에 있는 거죠?" 『1992년 3월 5일 말씀 인용』

구세주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1981년 8월 18일부터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한 이래로 천지개벽의 공사 기초지(基礎地)로 삼은 대한민국은 약 40여 년간 연속해서 풍년이다. 그런데 지난 3월 5일 경칩(驚蟄)은 비가 오지 않은 맑은 날이었다. 그래서 '혹여나 코로나19 괴질을 동반한 올해는 흉년까지 겹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염려도 없지 않았다.

왜냐하면, 구세주께서 "해마다 장마를 못 지게 하고 해마다 풍년 들게 했었는데, 갑자기 흉년 들기 시작하면 이제 때가 임박한 것으로 알아야 하며 흉년이 들기 시작하면 3년간 흉년 들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2년간 죽을병이 되는 괴질이 도는데(적암유록 기사중론), 그 병은 피가 끈적 끈적하게 응고되는 병으로 피가 유통이 안 되니까 심장마비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병이 아침에 걸렸다면 저녁이면 죽어서 시체로 되어서 나가게 되어 있어요. - 중략 - 이 지구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60억 인구인데 바로 54억 명이 다 죽고 6억 인간만, 삼분지 일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참, 비참한 일이 벌어지지?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가 6천 년간을 하나님의 자식들을 다스리다가 마귀가 이제 멸망을 당해서 죽게 되니까, 이제 마귀는 심통이 사나워? 안 사나워? 심통이 사납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 하나씩 붙잡고 이제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병에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2001. 6. 1. 말씀)

다행히도 4·19혁명 60주년 맞이하는 날로 4월 19일 곡우(穀雨); 24절기의 여섯 번째 절기이자 봄의 마지막 절기에 전국적으로 봄비가 흠뻑 내림으로써, 곡우에 비가 오면 못지않게 물로 쓰기 좋기 때문에 풍년이 들게 된다는 속담을 떠오르게 하였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82>
"빛으로 화하면 날아다니면서 산다"

인간이 빛으로 화하면 영원무궁토록 날아다니면서 살아요. 이 사람과 같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날 때 여러분들은 못 나는 게 아니고 같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날아가는 데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 세상은 시간과 공간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마음만 먹으면, 마음먹

은 상태 그대로 그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순간에 가고 순간에 돌아오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하기를, 사람이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때는 죽지 않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빛으로 화하면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영원무궁토록 사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극복, 면역력 높이는 비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세계적인 공포와 불안의 도가니에 빠져 있는 시국입니다. 이를 극복하는 최고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희망입니다

희망은 앞일이나 자신의 미래에 대한 바람이나,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소원을 뜻하는 말입니다. 삶의 희망, 경제의 희망을 품으면 마치 감감한 어둠 속에서 불빛이 쬐이는 것처럼 몸 안의 떨어진 면역력이 되살아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가운데서도 나와 모두가 무사태평하고 안정하게 잘 될 것임을 가장 우선적으로 확신해야 합니다. 희망은 곧 삶의 빛이자 생명이자 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희망을 품는 순간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희생적인 마음입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려는 생각은 자신에게 극도의 불안과 초조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불안과 초조는 몸 안의 면역력에 가장 치명적입니다. 몸 안의 암이 잘 발생하는 기질이 과도한 욕심과 이기주의의 토대가 만들어졌을 때 기인하기 쉽다는 의학적 보고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암세포는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활개를칩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나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희생적 마음이 코로나19 극복에 큰 기여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대인배(大人輩)답게 타인과 국가와 민족을 위해 나 하나 희생이 되어도 좋다는 각

오와 결심은 엄청난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웃음과 여유를 잃지 않는 마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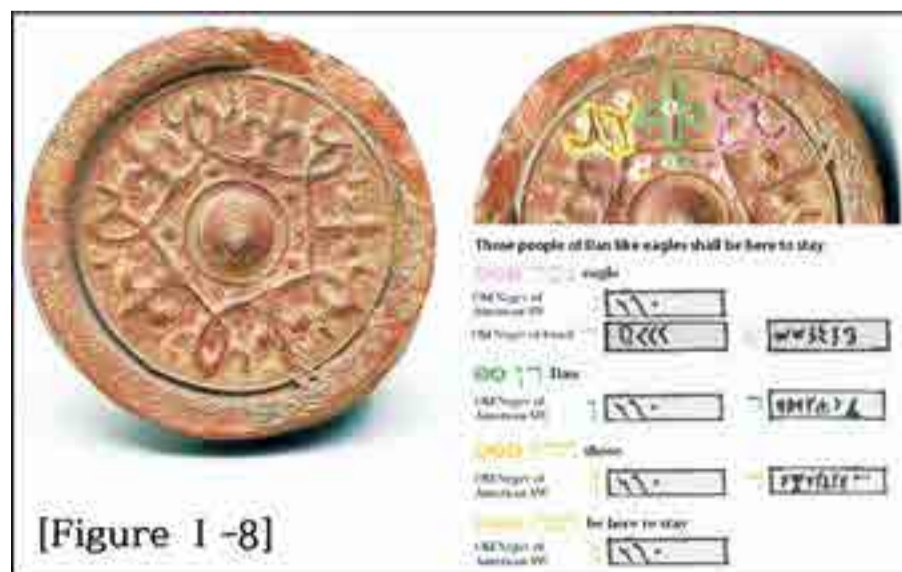
지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마음의 여유와 웃음을 잃지 않는다면, 이미 그에게 지옥도 지옥이 될 수 없습니다.

웃음이 면역력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웃음이 나오려면 반드시 여유가 뒤따라야 합니다. 조급하고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에서 웃음이 나올 수 없습니다. 내 몸 안의 면역력이 가장 먼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봅니다. 급할 때일수록 여유를 가지라는 말은, 마음이 차분해져야만 모든 일을 순서껏 안정되게 잘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웃음이 나올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회개와 눈물입니다

모든 일에서 과거의 잘못된 점을 찾아 그것을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고 똑바르게 살아가려는 의지와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나 코로나19 전염병과 마찬가지로 이것의 잘못된 점을 파악하고 개선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발전과 미래가 없습니다. 과오와 실수가 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는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몸 안의 면역력을 극도로 높인다는 과학적 사실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음을 잘 인식하고 각자가 앙심껏 즉각 실천해 읊시다.*

김주호 기자



[Figure 1-8]

유물명칭: 단군의 독수리 와당. 국적: 한국, 시대: BC1200, 지름: 14.6cm, 두께: 2.7cm, 소장처: 경희대학교, 유물번호: 경희대학교301412-000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결정적인 근거는 고조선 유물의 <단군의 독수리 와당>에 새겨져 있는 고대 히브리어(올드네게브 문자)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문자는 사사(士師)시대의 초기 문자이다.

[Figure 1-8]은 단(Dan)의 독수리 와당이며, 올드네게브(Old Negve) 문자로 새겨진 문양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독수리와 같은 저 단군의 백성들이 여기에 정착하게 될 것이다"

단(Dan)의 독수리 와당III

단(Dan)의 독수리 와당은 단지파의 백성들이 독수리로 비유한 와당으로서 고조선의 수도 부근(대동강 유역)에서 발견되었으며, 또한 이 와당에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 단군의 백성(단지파 백성)이 한반도에 도착하여 정착한다는 뜻이다.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신명기 28장 49절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이처럼 한민족은 일종의 신(神)의 계시를 받은 특정 장소에 정착하여 나라를 세

우고 싶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열례로 한민족의 한 갈래로 보이는 멕시코 원주민들이 남긴 고대 그림문헌에는 그들의 조상들은 원래 위가 평평한 피라미드가 있는 아스판(Aztlan)에 살았지만 "왕(王)이자 제사장(또는 무당) 되는 기질(Huitzil)이 떠나자, 우리의 신이 새로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라고 선포하여 아스판(Aztlan)을 떠나 멕시코로 오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손성태, 『우리민족의 대 이동: 아메리카 인디언은 우리민족이다(멕시코편)』, p.287 인용]

다시 되돌아가서 [Figure 1-8]의 와당에 단의 백성들이 독수리로 비유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전승에서 유래된 것 같다. 유대 랍비의 전승에 의하면, 모세 시대에 성

막을 중심에 두고, [Figure 1-9]와 같이 동쪽을 담당한 유대인과 진영에는 웅크린 사자의 모습이 그려진 녹색깃발을 꽂았고, 서쪽을 담당한 에브라임 진영에는 황소 형상이 그려진 황색깃발을 꽂았으며, 남쪽을 담당한 르우벤 진영에는 사람 얼굴이 그려진 홍색깃발을 꽂았고 그리고 북쪽을 담당한 단지파 진영에는 독수리가 그려진 백색깃발을 꽂았다고 한다.

아마도 성막을 중심으로 한 동서남북 4진영의 깃발의 색깔은 대제 사장의 흉패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12보석의 색깔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출애굽기 28장 17-20절 참조).

또한 4진영의 깃발에 네 생물을 그려 놓은 이유는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Figure 1-9] Four camps surround the tabernacle

성막 중심의 4진영 배치도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라는 성경 에스겔 1장 10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백태선 기자